

萬葉集의 韓人系 作家攷

李 妍 淑*

차 례

I. 序 論

II. 本 論

1. 기존 연구들에 대한 점검

2. 『萬葉集』의 韓人系 작가

3. 그 외의 작가들에 대한 가능성

III. 結 論

I. 序 論

한국과 일본은 상대에 있어서 밀접한 문화교류관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국의 문학이 일본의 상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은 지금까지 자주 지적되었다. 일본의 상대 시가집인 『萬葉集』에 대해서도 中西進은

본디 萬葉集의 노래를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 고대 조선으로부터의 충격력이었다. 좀 지나치게 쓰는 것 같아서 주저되지만 저 백촌강의 싸움이 없었다면 萬葉集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天智2년(663), 당에 대해서 최후의 저항을 한 백제는 일본의 도움도 소용없이 크게 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의 고관들은 일본으로 망명, 일본의 조정은 그들을 맞이하여 후퇴한 전선을 일본에 구축한 것이 되었다. 각지의 築城, 수도의 移動, 그리고 軍事教練이 행하여졌으나, 다행히 唐의 來襲은 없었다. 그 결과, 백제의 문화를 일본이 계승하는 형식으로 역사가 흘러 갔다. 그 속에 탄생한 것이 萬葉集이다.¹⁾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角川書店, 1980 初版), pp.106-107.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星野五彦은,

고대 문예에 한정되지 않고 고대문화 일반에 대해서 귀화인의 역할은 크며, 그것은 최근의 高松塚古墳의 발굴에 의해 한층 확실해진 감이 있다. 이 高松塚古墳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륙문화의 일본에의 전파는 예상외로 많으며 또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²⁾

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보더라도 한반도의 문화, 인적교류가 일본의 상대 『万葉集』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韓人系 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으며, 대체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혹은 어느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일부 시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 우리 문학의 자료가 영성하여 그 특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문학의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고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上代 詩歌集인 『万葉集』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한인계 작가를 추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인계 작가들이 추출된다면 그 다음에 이들의 작품을 『万葉集』의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이질적인 특성이 파악될 것이고 이 이질적인 특성은 바로 한국 상대문학의 특성과 관련지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주로 문헌적 방법을 원용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를 하면서 과연 한인계 작가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들 작가가 한인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움이 무척 많았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해 가는 동안 한인계 작가가 한 사람씩 떠오르고 또 필자 자신이 한인일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일단 추정을 하였던 작가들의 대부분이 과연 한인계 작가임이 밝혀짐으로써 많은 보람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 하겠다.

2) 星野五彦, 「万葉集における歸化人」, 『國學院雜誌』(1973, 10월호), p.28.

다만 이번의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과 논문을 종합하여 한인계 작가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학 연구자들에게나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 아직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작가들도 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渡來人, 혹은 한인계로 본 작가이면 일단 모두 한인계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완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앞으로 이 논문에서 제외된 작가도 계속 더 한인계로 추정될 여지가 많으며 혹시 본 논문에서 한인계로 보았지만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감히 하나의 모험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는 모두 한인계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 상대 문학의 공백이 조금이라도 메꾸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들 문학의 성격을 일본 혹은 그 외 다른 나라 문학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본질과 그 특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Ⅱ. 本 論

1. 기존 연구들에 대한 점검

『萬葉集』의 한인계 작가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일부 연구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에 관한 관심이 그다지 없다가 최근 다시 이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萬葉集』 작가는 대개 총 500여명³⁾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한인계 작가에 대한 연구에 의해 드러난 기존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本信三은 萬葉集中에 보이는 韓族 혹은 準韓族으로 볼 수 있는 자는, 異說

3) 中西 進, 『萬葉集事典』(講談社, 1996 8刷)에서는 총 740 여명의 인명을 들어 해설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 작중 인물을 제외하면 작자는 약 500 여명 된다. 그리고, 稻岡耕二의 『萬葉集事典』(別冊國文學 46, 學燈社平成五年 8月)에는 약 480 여명의 작가가 실려 있다. 또,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의 『萬葉集歌人事典』(雄山閣, 1982)에서는 약 490 여명의 작가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星野五彦은 앞의 논문에서 萬葉 作家를 약 540 여명이라고 하였다.

도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고 하고는 29명을 들고 있다.

高麗朝臣福臣, 山村已知部, 宇努首男人, 消奈行文, 金命軍, 吉田連宜, 吉田連老, 安宿奈杼麻呂, 舟氏麻呂, 長忌寸奧麻呂, 田部忌寸櫟子, 山口忌寸若麻呂, 神社忌寸老麻呂, 文忌寸馬養, 坂上忌寸人長, 大藏忌寸麻呂, 內藏忌寸繩麻呂, 磐余伊美吉諸君, 馬史國人, 忍坂部乙麻呂, 史氏大原, 田氏肥人, 高氏義通, 田氏眞人, 高氏老, 高氏海人, 張氏福子, 長忌寸娘, 檜前舍人石前妻⁴⁾

그리고 星野五彦은

萬葉集 속에서 이름이 보이는 자는 무릇 540 여명인데 그 중에 86명인 16%가 귀화인계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사실이다. (中略) 여기에 防人이 더해질 수 있으며, 또 황족 중에서 귀화계로 생각되는 자가 약 16명 정도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적으로 한 획을 긋는 입장에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⁵⁾

고 하였다.

星野五彦에 의하면 『萬葉集』 작가 540여명 중에서 외국인 작가들은 86명에 다 그의 황족도 16명 정도 포함되며, 그 외에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星野五彦은 도래인임이 확실한 그 86명 중에서 다시 出自가 판명한 자를 58명으로 압축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百濟 26, 新羅 2, 高麗 5, 漢 25⁶⁾

星野五彦이 한인계로 본 작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百濟: 舍人吉年, 調某(首), 忍坂部乙麻呂(百?), 刑部垂麻呂, 舍人娘子, 調談海, 三野岡麻呂, 麻田陽春, 宇努男人, 葛井大成, 葛井某, 葛井廣成, 三野石守, 余明軍(新?百), 吉田連老, 上古麻呂(百?漢), 山上憶良, 大石養麻呂(百?漢), 刑部三野, 刑部虫麻呂, 葛井子老, 葛井諸會, 六鯖, 安宿奈杼麻呂(百?),

新羅: 余明軍(新?百), 大藏忌寸麻呂

高句麗: 消奈行文, 高氏義通, 高氏老, 高氏海人, 高麗朝臣福信⁷⁾

4) 山本信三, 「萬葉集に見えたる日鮮關係の詞彙」, 『朝鮮』 116호(1924년 12월), pp.74-77.

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1.

6)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1.

여기에서 보던 星野五彦은 『萬葉集』에서 도래인의 숫자를 86명, 그리고 황족을 16명, 그 외 防人까지 합치면 약 100 여명이 되는 것으로 본 셈이지만, 그 중에서 정작 한인계로 본 것은 결국 3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33명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한인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연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표를 그려서 분류해 놓았다. 그러나 어쨌든 星野五彦의 설로 보면 『萬葉集』작가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도래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 上田正昭는 그의 논문에서 『萬葉集』의 도래인 작가를 논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調首淡海, 樂浪河內, 吉田連宜, 麻田連陽春, 余明軍, 田邊史福麻呂, 山田史土麻呂, 椎野連長年, 薩妙觀, 秦忌寸朝元, 山田史御方, 秦忌寸八千嶋, 文忌寸馬養, 宇努首男人, 緣達師, 元仁, 田邊史眞上, 張福子, 刀理宜命, 山口忌寸若麻呂, 馬史國人, 大藏忌寸麻呂, 消奈行文, 長忌寸意吉麻呂, 秦間滿, 秦田麻呂, 調使首, 軍王, 山上憶良⁸⁾,

모두 29명인데 이 중에서 한인계라고 밝힌 작가도 있지만 그냥 도래인이라고만 설명되어 있는 자도 많다.

그외 연구자들은 부분적으로 도래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의 『萬葉集』인명 사전류를 보아도 그리 많은 숫자는 보이지 않으며 거의가 비슷한 내용이다.

그리고 李鍾徹은

萬葉集歌 속에는 韓民族의 文化的 要素가 反映된 것으로 보이는 素材가 收錄되었음은 물론, 萬葉時代 第二期인 飛鳥・藤原宮時代(673-710 A.D.)부터第三期인 奈良時代 前期(710-733 A.D.)까지 三國으로부터 渡倭한 歸化人系 萬葉歌人들의 大々的인 活躍相을 볼 수 있다. 이들 萬葉歌人은 크게 三大別할 수 있는데, 姓氏錄에 의하면 天皇・皇女 등 皇室歌人들은 '皇別(天孫民族)'에, 臣(Orni)・宿禰(Sukune)・朝臣(Asomi) 등의 姓을 가진 歌人들은 '神別(kuni tu kami)'에, 그리고 連(Murazi)・忌寸(Imiki)・村主(Suguri)・首(Obitō) 등의 姓을 가진 歌人들은 '蕃別'에 각각 屬하는데 歸化人系 歌人들은 모두 蕃別에 속한다.

7) 星野五彦, 위의 논문, pp.29-30의 표 중에서 발췌한 것임.

8) 上田正昭, 「萬葉の歌と渡來人」,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제23권(學燈社, 1978. 4), pp. 28-34.

이제 歸化人系에 속하는 連(Murazi)·忌寸(Imiki)·村主(Suguri)·首(Obitō)란姓을 가진 萬葉歌人과 그 作品을 찾아보기로 하자.

高橋連虫麻呂(Takafasimurazimusimarō)를 비롯한 ‘連’이란 성을 가진 歌人은 모두 18명에, 그 歌數는 88首, 長忌寸意吉麻呂(Naganō imikiokimarō)를 비롯한 ‘忌寸’이란姓을 가진 歌人은 모두 14명에 그 歌數는 61首, 調使首(Tukinō)를 비롯한 ‘首’란姓을 가진 歌人은 4명에 그들의 歌首는 11首, 安作村主益人(Kuratukurinō sugurimasufitō)을 비롯한 ‘村主’란姓을 가진 歌人은 3명에 그들의 歌首는 4首 등 以上 蕃別에 속하는 萬葉歌人數는 모두 39명에 그들의 歌首는 모두 164首에 달한다. 그런데 中西 進에 의하면 萬葉時代 第三期(元明·元正·聖武 710-733A.D.)에 大活躍을 하던 山上憶良도 歸化人系 萬葉歌人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追加한다면 歸化人系의 수는 더 늘어났다. 이 밖에도 몇 사람 더 歸化人系 歌人을 追加할 수 있다. (中略)

以上 現在까지 筆者가 確認한 萬葉歌人의 總數는 모두 306명인 바 그 중 相當數가(約 46名) 歸化人系 第一世 및 歸化人系 第二世의 作者로 推定되며 그들의 歌數는 總 4500餘首(萬葉의 歌首는 契沖의 萬葉集代匠記에서는 4515首, 鹿持雅澄의 萬葉集古義에서는 4496首, 松下大三郎의 國歌大觀에서는 4516首로 각각 研究者에 따라 差異가 있음) 중에서 確認된 것만도 246首에 이르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고 하였다. 그리고 註에서 그 작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連姓: 高橋連虫麻呂, 葛井連大成, 葛井連廣成, 高市連黑人, 置始連東人, 門部連石足, 三野連石守, 麻田連陽春, 中臣間人連老, 葛井連子老, 置始連長谷, 雪連宅麻呂, 椎野連長年, 葛井連諸會, 尾張連, 板茂連安麻呂, 茨田連沙彌麻呂, 六人部連鯖麻呂(18명)

忌寸: 長忌寸意吉麻呂, 大藏忌寸麻呂, 坂上忌寸麻呂, 長忌寸娘, 秦忌寸朝元, 秦忌寸八千島, 秦忌寸許遍麻呂, 田部忌寸櫟子, 山口忌寸若麻呂, 神社忌寸老麻呂, 文忌寸馬養, 秦忌寸間滿, 秦伊美吉石竹, 內藏伊美吉繩麻呂(14명)

首: 調使首, 忌部首黑麻呂, 調首淡海, 宇努首男人(4명)

村主: 生石村主眞人, 安作村主益人, 上村主古麻呂(3명)

그외: 高氏海人, 高氏老, 田氏肥人, 田氏眞上, 張氏福子, 土理宣令, 山上憶良(7명)¹⁰⁾

李鍾徹은 『萬葉集』 歌人을 총 306명으로 보고 그 중에서 歸化人系를 위의

9) 李鍾徹, 『郷歌와 萬葉集歌의 表記法 比較 研究』(集文堂, 1983), pp.21-24.

10) 李鍾徹, 위의 책, pp.21-23.

連姓 18명, 忌寸 14명, 首 4명, 村主 3명 총 39명에다 高氏海人, 高氏老, 田氏肥人, 田氏眞上, 張氏福子, 土理宣令 6명을 추가하여 모두 45명으로, 여기에 中西進이 한인계라고 본 山上憶良을 더하고 있다. 李鍾徹은 이들을 귀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한인계만을 지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중국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萬葉集歌 속에는 韓民族的 文化的 要素가 反映된 것으로 보이는 素材가 收錄되었음은 물론, 萬葉時代 第二期인 飛鳥・藤原宮時代(673-710 A.D.)부터 第三期인 奈良時代 前期(710-733 A.D.)까지 三國으로부터 渡倭한 귀화인계 萬葉歌인들의 大의인 活躍相을 볼 수 있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한인계를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도래인 혹은 귀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귀화인이라는 표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井上秀雄이

일반적으로 渡來人이라고 하면 日本文化에 큰 영향을 미친 國家形成期에 朝鮮으로부터 渡來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은 현재도 여전히 「歸化人」으로 불리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본 渡來의 狀態와 일본 문화형성에의 寄與 등으로 보아 歸化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로는 渡來人으로 改稱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고대국가 성립 이후의 귀화인과 그 법률적인 처우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의식도 달라, 귀화인이라는 호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도래인이라는 말도 아직 역사 용어로는 완전하지 않은 말이지만 적당한 용어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종래의 귀화인을 대신하는 말로 도래인을 사용하고자 한다.¹¹⁾

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사학자들은 도래인과 귀화인을 명백히 구분하여 『萬葉集』 작가들의 경우는 귀화인보다는 도래인의 개념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화인보다는 도래인이 더 정확한 개념이겠으나 이 도래인이라는 것도 일본인의 입장에서 사용한 용어이며, 또 이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한인계인가 中國系인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인계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그러나 출자가 전연 불분명할 경우는 기존의 도래인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겠으나 한국인의

11) 井上秀雄, 「渡來人の系譜」, 『日本神話と朝鮮 講座 日本の神話 9』(有精堂, 1977), pp. 62-63.

입장에서는 이 용어도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필자는 渡倭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 『万葉集』에서 渡倭人 작가에 대해 다룬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논문들에 의하면 渡倭人은 상당수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한인계로 인정되는 작가만도 45명, 33명, 29명 등으로 열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서로 중복되는 작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도 있으며 또 개별적 작가를 논할 경우에 한인계로 추정된 또 다른 작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星野五彦이 渡倭人으로 본 작가는 100 여명이나 되므로 出自가 명확하지 않은 작가들 중에서도 한인계일 수 있는 작가들이 있을 것이다. 또 星野五彦이 漢系로 본 작가 중에서도 그들이 漢系가 아니라 한인계인 작가들이 있으므로 결국 한인계 작가는 우선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수십명은 된다고 보아진다.

2. 『万葉集』의 韓人系 작가

그러면 위의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万葉集』 작가 중에서 한인계 작가를 추출하여 보기로 한다. 편의상 그 인명들을 漢字의 우리말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角麿(츠노노마로)¹²⁾

이 角 姓에 대하여 『古事記』 孝元天皇條에서는 “木角宿禰者 木臣 都奴臣 坂本臣之朝”¹³⁾라고 하였고,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上에서는 “角朝臣 紀朝臣同祖 紀角宿禰之後也 日本紀合”¹⁴⁾이라고 하였다. 『日本書記』 雄略天皇條에도 “是角臣等初居角國 而名角臣 自此始也”¹⁵⁾라 되어 있다.

그리고 中西 進은

白村江 이후에 일본에 도래한 사람들로서 吉大尙, 沙門詠, 答本春初, 四比

12) 이하 万葉集 作家의 표기·발음은 中西 進의 『万葉集事典』을 따르고자 한다.

13) 日本古典文學大系 『古事記』(岩波書店, 1981), p. 172. 이하 大系라고 略함.

14)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本文篇』(吉川弘文館, 1981), pp.161-162.

15) 大系 『日本書紀 上』, p.485.

忠勇, 余自信, 角福牟, 憶禮福留, 沙宅紹明, 許率母, 그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은 그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하여 정치를 정비하고 있었다. 당면한 가장 필요한 군정에 대해서는 春初와 忠勇, 福留들이, 예법에 대해서는 角福牟, 紹明, 許率母들이 그리고 醫藥에 대해서는 吉大尙 등이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다.¹⁶⁾

라고 한 뒤 角麻呂, 廣弁을 角福牟의 후예¹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그런데 角臣의 주변도 복잡하다. 角(都努)臣은 木角宿禰를 조상으로 하고 (孝元記), 紀朝臣과 同祖. 天武 十三年 十月에는 朝臣의 성을 받았는데 위의 廣弁은 그 일족의 후손일 것이다. 그러나 麻呂는 無姓이고 雄略 九年 三月 紀에 의하면 小鹿火宿禰라고 하는 終始氏를 기록하지 않고, 그 때문에 上文에 열거된 紀小宮宿禰와 同氏일 것으로도 추정되는 인물이 신라를 친 기사가 있고 그는 신라에 머물러 「兵馬船官」 및 여러 小官」을 관장하고 있다. 후에 內訌을 낳아 귀국 「角國」에 머물러 거주하게 되었고, 「이 角臣 등이, 처음에 角國에 거주하였다. 角臣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角은 지금 周防國으로 생각되어진다.¹⁸⁾

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角姓은 木姓, 紀姓과 同祖인데 위의 紀朝臣男木尾에서 보듯이 紀朝臣이 百濟系이므로 角麻呂는 백제계 한인이 된다.

따라서 角朝臣廣弁(츠노노아소미코우벤)도 역시 백제계가 될 것이다.

・葛井連廣成(후지이노브라지히로나리)

이에 대해 稻岡耕二는

渡來人系로 白猪였는데 養老4년(720) 葛井連의 성을 받았다. 同三年 遣新羅史, 大外記, 從六下. 天平 3년(731) 外從五下. 同15년 新羅史를 檢校, 신라와 관계있는 듯하다.¹⁹⁾

고 하였으나 葛井連大成에서는 백제계 도래인이라고 하였다. 星野五彦도 “백제 귀화인”²⁰⁾으로 보았다. 葛井氏는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16) 中西 進, 『万葉の時代と風土』, p.107.

17) 中西 進, 위의 책, p.109.

18)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上代文學』 제36호(1975. 7), p.109.

19)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20.

葛井連大成(후지이노브라지오호나리)은 대체로 葛井廣成의 형으로 보며 따라서 백제계라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²¹⁾ 있다. 따라서 葛井連大成 역시 백제계이다.

葛井連子老(후지이노브라지코오유)에 대하여 稻岡耕二는 葛井連廣成의 일족이라고 보았으며²²⁾ 『万葉集歌人事典』과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²³⁾으로 보았다. 그리고 高橋庄次는

葛井連子老是『姓氏錄』에「葛井宿称 菅野朝臣同祖」(右京諸蕃下)라고 하였고, 그「菅野朝臣」조에는「出自百濟國都慕王十世孫 貴須正也」(同)라고 하였으므로 宿称姓의 前의 葛井連도 역시 백제계이다.『續紀』養老4년 5월 10일 조에「改白猪史氏 賜葛井連姓」이라고 하였고, 葛井連의 前의 白猪史의 氏姓에 대하여『姓氏錄』(未定雜姓・河内國)의「大友史」조에「百濟國人 白猪奈世之後也」라고 하였으므로 葛井氏가 백제계의 씨족인 것은 명백하다.²⁴⁾

라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葛井連諸會(후지이노브라지모로아이), 葛井某 모두 역시 백제계라 하겠다.

• 境部王(사카히베노오오키미)

이 境部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지만 中西 進은 “境部臣, 林臣을 포함한 蘇我一族이 渡來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昨今이다.”²⁵⁾고 하였는데 蘇我氏, 林臣이 백제계이므로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境部宿禰老麻呂(사카히베노스쿠네오유마로)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 高橋朝臣(타카하시노아소미)

高橋朝臣은『新撰姓氏錄』左京皇別上에 “阿倍朝臣同祖 大稻與命之後也 景行

2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21)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20.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76. 星野五彦, 위의 논문, p.29.

22)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20.

23)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85.

24) 高橋庄次, 「遺新羅使歌の百濟系の歌主と八幡神(上)」, 『上代文學』 제66호(上代文學會, 19 1. 4), p.47.

25)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12에서 杉山二郎・梅原猛・田邊昭三諸・藤原鎌足の 설을 들고 있다.

天皇巡狩東國供獻大蛤 于時天皇喜其奇美賜姓膳臣 元淳中原瀛真人天皇(諡天武)十二年改膳臣賜高橋朝臣”²⁶⁾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高橋蟲麻呂(타카하시노무시마로)는 『萬葉集』에 ‘詠不盡山歌一首’(3, 319, 320, 321)의 左注에서 “右一首高橋連蟲麻呂之歌中出焉 以類載此”라고 하였고, 또 ‘四年(壬申)藤原宇合卿遣西海道節度使之時高橋連蟲麻呂作歌一首(并短歌)’(6, 971, 972)와 ‘惜不登筑波山歌一首’(8, 1497)의 左注에서 “右一首高橋連蟲麻呂之歌中出”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高橋蟲麻呂는 高橋連蟲麻呂로 連姓이므로 渡倭人임을 알 수 있다.

高橋蟲麻呂가 連이어 渡倭系라면 高橋朝臣도 같은 姓이므로 渡倭系가 될 것이다. 高橋朝臣과 高橋蟲麻呂는 渡倭人이다.

・高丘連河內(타카오카노모라지코우치)

高丘連河內는 『續日本紀』神護景雲二年六月條를 보면 “庚子(廿八日)內藏頭兼大外記遠江守從四位下高丘宿禰比良麻呂卒 其祖沙門詠 近江朝歲次癸亥(天智二年)自百濟歸化 父樂浪河內 正五位下大學頭 神龜元年 改爲高丘連(中略) 景雲元年賜姓宿禰”²⁷⁾이라 하였으므로 원래 樂浪河內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新撰姓氏錄』河內國諸蕃에서는 “高丘宿禰 出自百濟國公族大夫高侯之後 廣陵高穆也”²⁸⁾라 하였으므로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中西 進은

모두에서 언급한 神龜5년의 賜姓은, 아는 바와 같이 渡來者들에게 내린 것이었다. 같은 때에 성을 받은 것은 高丘連의 樂浪河內, 椎野連의 四比忠勇, 麻田連의 答本陽春들이었다. 河內的 父는 沙門詠, 陽春의 父는 答本春初이다. 그들은 백촌강의 싸움에 패전하여 도래한 사람들이며 그 2세가 지금 賜姓받은 것이다. 妙觀을 같은 경우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까.²⁹⁾ 라고 하였고, 上田正昭도

樂浪河內는 天智稱制 2년(663)에 백제로부터 도래한 沙門 詠의 아들이며,

26) 佐伯有清, 앞의 책, p.159.

27) 國史大系 『續日本紀 後篇』(吉川弘文館, 1982), p.355. 國史大系 『續日本紀』는 이후 『續日本紀』로 略함.

28) 佐伯有清, 앞의 책, p.320.

29)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 pp.120-121.

和銅 5년(712) 7월까지의 播磨國의 大目으로 就任하고, ‘힘써 正倉을 만들고, 능히 功績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位一階가 올랐다. 『播磨國風土記』에는 朝鮮 渡來 關係 記事가 많다. 이것은 播磨國에 조선 渡來人들과 그 문화가 농후하게 분포하여 있었던 외에 播磨國의 大目이었던 樂浪河內가 그 編纂에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것과도 관련되고 있을 것이다.³⁰⁾

고 하였다. 稻岡耕二, 小島憲之도 마찬가지로 백제로부터 도래한 沙門 詠의 아들, 比良麿의 父로 보았다. 따라서 高丘連河內는 백제계임이 분명하다.

• 高麗朝臣福信(코마노아소미후쿠신)

『續日本紀』에 天平 十九年 六月 辛亥(七日)條에 “正五位下背奈福信 外正七位下背奈大山 從八位上背奈廣山等八人賜背奈王姓”³¹⁾이라 하였고 勝寶二年 正月 丙辰(廿七日)條에는 “從四位上背奈福信等六人 賜高麗朝臣姓”³²⁾이라 하였다. 그리고 寶龜十年三月戊午(十七日)條에는 “從三位高麗朝臣福信賜姓 高倉朝臣”³³⁾이라 하였고, 延曆八年十月 乙酉(十七日)條에는

散位從三位高倉朝臣福信薨 福信 武藏國高麗郡人也 本姓背奈 其祖福德屬唐將李勣 拔平壤城 來歸國家 居武藏焉 福信卽福德之孫也 少年隨伯父背奈行文入都(中略) 勝寶初 至從四位紫微少弼改本姓賜高麗朝臣 遷信部大輔 神護元年 授從三位 拜造宮卿 兼歷武藏近江守 寶龜十年 上書曰 臣自投聖化 年歲已深 但雖新姓之榮朝臣過分 而舊俗之號高麗未除 伏乞 改高麗以爲高倉 詔許之 天應元年 遷彈正尹 兼武藏守 延曆四年 上表乞身 以散位歸第焉 薨時年八十---³⁴⁾

이라 한 것을 보면 원래는 背奈였는데 天平 19년(747)六月 背奈王 姓을 받고, 勝寶 二年(750) 正月 丙辰에 高麗朝臣 姓을 받았으며 寶龜十年(779)三月 高倉朝臣을 받았다가 延曆 八年(789) 高倉朝臣福信이 사망하자 本姓인 高麗朝臣을 다시 내렸다고 되어 있다.

中西 進과 『万葉集歌人事典』³⁵⁾에서는 모두 귀화인으로 福德의 孫이며 行文

30) 上田正昭, 앞의 논문, p.28.

31) 續日本紀 前篇, pp.192-193.

32) 續日本紀 前篇, p.209.

33) 續日本紀 後篇, p.448.

34) 續日本紀 後篇, p.540.

의 甥이라고 하였다. 星野五彦과 山本信三은 高市連 額田部同祖 天津彦根命三世孫 彦伊賀都命之後也³⁷⁾라고 하였고 『日本書記』 天武天皇 十二(683)年十月條에는 高市縣主 등에게 連 姓을 내렸다³⁸⁾고 되어 있다. 高市黑人이 連 姓이고 額田와 同祖라면 뒤의 額田王에서 논하겠지만 額田이 백제계이므로 高市姓 역시 백제 계임을 알 수 있다.

・高市連黑人(타케치노브라지쿠로히토)

高市氏は『新撰姓氏錄』右京神別下에 “高市連 額田部同祖 天津彦根命三世孫 彦伊賀都命之後也”³⁷⁾라고 하였고 『日本書記』 天武天皇 十二(683)年十月條에는 高市縣主 등에게 連 姓을 내렸다³⁸⁾고 되어 있다. 高市黑人이 連 姓이고 額田와 同祖라면 뒤의 額田王에서 논하겠지만 額田이 백제계이므로 高市姓 역시 백제 계임을 알 수 있다.

・高氏老(타카노우지노오유)

『萬葉集歌人事典』은 高氏를 “高橋・高麗・高丘・高向 氏 등을 생각할 수 있다”³⁹⁾고 하였고 星野五彦은 高市連 額田部同祖 天津彦根命三世孫 彦伊賀都命之後也³⁷⁾라고 하였고 『日本書記』 天武天皇 十二(683)年十月條에는 高市縣主 등에게 連 姓을 내렸다³⁸⁾고 되어 있다. 高市黑人이 連 姓이고 額田와 同祖라면 뒤의 額田王에서 논하겠지만 額田이 백제계이므로 高市姓 역시 백제 계임을 알 수 있다.

高氏義通(코우지노요시미치)은 『萬葉集』 卷第5 梅花歌 32首(815-846番歌)중의 高氏義通의 작품의 注에서 藥師라고 되어 있는데 澤瀉久孝는 “高麗氏라고 하면 義通도 음독해야 하나 藥師가 모두 귀화인의 자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이라 단정하기 힘들다”⁴²⁾고 하였다. 『萬葉集歌人事典』은 “高氏は 高橋・高麗・高丘・高向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약사인 까닭에 귀화계라고도 생각된다”⁴³⁾고 하였으며 星野五彦은 高氏海人 모두 高市連 額田部同祖 天津彦根命三世孫 彦伊賀都命之後也³⁷⁾라고 하였고 『日本書記』 天武天皇 十二(683)年十月條에는 高市縣主 등에게 連 姓을 내렸다³⁸⁾고 되어 있다. 高市黑人이 連 姓이고 額田와 同祖라면 뒤의 額田王에서 논하겠지만 額田이 백제계이므로 高市姓 역시 백제 계임을 알 수 있다.

35) 中西 進, 萬葉集事典, p.234.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萬葉集歌人事典, p.168.

3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37) 佐伯有清, 앞의 책, p.235.

38) 大系 日本書記 下, pp.459-460.

39)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萬葉集歌人事典, p.204.

40)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41)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42) 澤瀉久孝, 『萬葉集注釋 卷第Ⅴ』(中央公論社,1983), p.133.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⁴⁵⁾이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의 설을 따라 일단 고구려계로 보고자 한다.

高氏海人(타카노우지노아마)에 대해서도 高氏義通과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高氏老·高氏義通·高氏海人 모두 고구려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高安大島(타카야스노오호시마)

『新撰姓氏錄』攝津國諸蕃에 “高安漢人 出自伯國小須須也”⁴⁶⁾라 하여 고구려인으로 되어 있고, 河內國諸蕃에서는 “高安造 八戶史同祖 盡達王之後也”⁴⁷⁾라 하여 漢系로 되어 있다. 그리고 未定雜姓 河內國에서는 “高安忌寸 阿智王之後也”⁴⁸⁾라 하여 백제계로 되어 있다. 澤瀉久孝, 稻岡耕二도 도래인의 자손⁴⁹⁾으로 보았다. 아마 이 高安도 高橋·高麗·高丘·高氏와 더불어 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高田女王(타카타노오호키미)은 『万葉集』 卷第八에서 “高安之女也”(1444番歌)라고 되어 있는데 “高田女王은 高田王의 딸이며, 高田王은 天平十一年에 姓을 받아 大原真人高安이라고 한 사람”⁵⁰⁾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황실과 혈연관계를 맺은게 아닌가 보아진다.

• 軍王(이쿠사노오호키미)

青木和夫는 『日本書記』 雄略天皇 五年(461) 四月條와 또 七月條에 일본에 귀화한 百濟王 加須利君의 동생 毘支君을 軍君으로 표기하고 있고, 『續日本紀』 이후 コニキシ·コムキシ로 訓讀하고 있으며 또 『周書』 百濟傳에 “王姓夫余氏 號於羅瑕 呼爲毘吉支”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コニキシ는 백성이 百濟 王을 부를 때 사용하던 존칭인 바, 万葉集 5番歌의 ‘軍王’과 日本書記의 ‘軍君’을 유

43) 大久間喜一郎 外 2人 編, 『万葉集歌人事典』, p.205.

4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45)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46) 佐伯有清, 앞의 책, p.319.

47) 佐伯有清, 위의 책, p.323.

48) 佐伯有清, 위의 책, pp.345-346.

49)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一, p.408.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04.

50)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四, p.160.

사한 用字로 보고 ‘軍王’을 コニキシ로 혼독하였으며, 舒明朝에 있어서 コニキシ로 불릴 인물은 余豐璋 밖에 없다고 논하였다.⁵¹⁾ 伊藤 博도 “이 작품의 작가인 軍王은 倭歌의 전통 속에 호응하는 순수한 일본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백제 왕자 余豐璋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라고 하였다. 中西 進, 上田正昭⁵³⁾ 모두 백제계 왕족의 渡倭人이라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 忌部首黑麿(이무베노오비토쿠로마로)

『續日本紀』天平寶字三年 十二月壬寅(十日)條에 “外從五位下山田史白金 外從五位下忌部首黑麻呂等七十四人賜姓連 山田史廣名 忌部首黑麻呂 壹岐史山守等四百三人賜姓造”⁵⁴⁾라고 하였다. 連 姓이므로 渡倭系라고 할 수 있다. 星野五彦도 4기 귀화인⁵⁵⁾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巫部 등 점복과 관계 있는 부분에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제사나 점복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한인계가 아니었나 추정된다.

그렇다면 忌部首(이무베노오비토)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星野五彦은 만엽 4기 귀화인⁵⁶⁾이라고 하였는데 忌部首黑麻呂와 같은 一族으로 제사나 점복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한인계 渡倭人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 紀朝臣男梶(키노아소미오카지)

角麻呂 부분에서 보았듯이 紀朝臣은 角祖神과 同祖이다. 金達壽는

紀氏は 무엇일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특히, 和歌山縣은 紀伊國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百濟에 八大姓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木氏, 후에 木()라고 하는 複姓으로도 됩니다만, 이 八大姓의 하나인 木氏族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부터 紀伊에 渡來하여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紀伊의 古墳 出土品에 보이는 조선적인 것, 그 조선 문화는 그들과

51) 青木和夫, 「軍王小考」, 『上代文學論叢』(五味智英先生還曆記念 櫻楓社, 1968), pp.31-36.

52) 伊藤 博, 『萬葉集全注』 卷第一(有斐閣, 1983), p.46.

53) 中西 進, 『萬葉集事典』, p.198.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3.

54) 續日本紀 前篇, p.267.

5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56)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함께 도래하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⁵⁷⁾

라고 하여 백제계로 보았다. 角麻呂와 마찬가지로 이 紀朝臣도 백제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万葉集』의 작가 중에서 같은 紀 姓인 紀朝臣鹿人(키노아소미카히토), 紀朝臣清人(키노아소미키요히토), 紀朝臣豊河(키노아소미토요카와)도 마찬가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紀女郎(키노이라츠메)은 『万葉集』에서 “紀女郎怨恨歌三首 鹿人大夫之女名曰小鹿也 安貴王之妻也”(卷第4, 643, 644, 645)라 한 것으로 보아 紀朝臣鹿人の 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紀朝臣鹿人이 백제계이므로 그 딸인 紀女郎도 백제계가 될 것이다.

紀卿에 대해서는 澤瀉久孝는 “「紀卿」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天平10년에 大貳로卒한 紀男人在 있으나, 그 사람은 9년 7월에는 右大辯이어, 그 男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⁵⁸⁾고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紀姓으로 백제계에 넣어도 좋을 것 같다.

• 吉田連宜(요시다노브라지요로시)

『續日本紀』文武天皇四年八月 乙丑(廿日)條에 “勅僧通德 惠俊並還俗 代度各一人 賜通德姓陽侯史 名久余曾授勳廣肆 賜惠俊姓吉 名宜 授務廣肆 爲用其藝也”⁵⁹⁾라고 하였다. “其藝”라고 한 것은 의술인데 文武天皇이 그 의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속시켰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神龜元年五月辛未(十三日)에는 姓 吉田連을 받았다.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에는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⁶⁰⁾라고 하였다.

그리고 澤瀉久孝는 文德實錄 嘉祥三年十一月己卯(六日)條의 治部大輔興世朝臣書主의 死去 記事에 “書主右京人也 本姓吉田連 其先出自百濟 祖正五位下圖書頭兼內藥正相模介吉田連宜 父內藥正五位下古麻呂 並爲侍醫 累代供奉 宜等兼長儒道 門徒有錄”이라 한 기록을 인용하고 나서 “新撰姓氏錄의 기록과 출처를

57) 座談會 司馬遼太郎 上田正昭 金達壽譯, 『日本の渡來文化』, (中央公論社, 1982), p.119.

58)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五, p.111.

59) 『續日本紀』 前篇, p.7.

60) 佐伯有清, 앞의 책, p.167.

달리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선과 관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런 까닭에 한문 소양도 깊었다고 생각되며”⁶¹⁾라고 하였다.

稻岡耕二와 上田正昭는 百濟 出身⁶²⁾이라고 하였으며, 中西 進은 白村江 이후에 일본에 도래한 사람들 중의 의약과 관련한 吉大尙의 후예⁶³⁾라고 하였다. 山本 信三은 任那人의 후예⁶⁴⁾라고 하였다. 백제 吉大尙의 후예로 봄이 옳을 것이다.

吉田連老(요시다노무라지오유)에 대하여 中西 進은 “吉大尙은 藥에 뛰어났으므로 天智朝에 位를 받았던 인물로 유교에도 밝은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그 피를 받은 老”⁶⁵⁾라고 하였고, 星野五彦은 백제 귀화인⁶⁶⁾이라 하였다. 吉田連宜와 동족인 백제계로 보고자 한다.

• 內藏忌寸羅麻呂(쿠라노이미키나와마로)

星野五彦은 귀화인⁶⁷⁾이라고만 하였으나 山本信三은 韓族 또는 準韓族⁶⁸⁾이라고 하였다. 渡倭人에게 부여되었던 忌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한인계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 丹比磨(타지히노마로)

丹比麻呂의 丹比는 지명과 관련된 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直木孝次郎은

이 船, 津, 葛井은 앞에서 말씀드린 西文, 武生, 藏 등과 함께 어느 쪽이나 다 古市郡, 丹比郡, 志紀郡 부근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西文, 武生, 藏의 三氏族이 정말 王仁의 자손인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王仁에서 나왔다고 하는 傳承을 지니고 있습니다.⁶⁹⁾

61) 澤瀉久孝, 『萬葉集注釋』 卷第五, p.185.

62) 稻岡耕二, 『萬葉集事典』, p.234.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0.

63)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 p.109.

64)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4.

65) 中西 進, 『萬葉の時代と風土』, p.122.

66)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67)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68)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69) 直木孝次郎의 발언, 『王仁系氏族とその遺跡』 座談會 司馬遼太郎 上田正昭 金達壽 편, 『日本 渡來文化』, p.47.

라고 하였다.

王仁과 관련된 船, 津, 葛井, 西文, 武生, 藏 등이 다 古市郡, 丹比郡, 志紀郡 부근에 살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丹比郡에는 백제계 도래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丹比氏는 丹比郡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아마도 王仁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직접 계보상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면서 여러 면에서 관련을 가졌던 백제계가 아닐까 한다. 丹波大女娘子도 도래계임을 보면 丹이 들어가는 姓은 백제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丹比真人屋主(타지히노마히토야누시), 丹比真人國人(타지히노마히토쿠니히토), 丹比真人乙磨(타지히노마히토오토마로)는 모두 백제계가 되지 않을까 한다.

• 丹氏磨(탄시노마로)

丹比氏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백제계가 될 것이다.

• 丹波大女娘子(타니하노오호메오토메)

稻岡耕二는 “丹波는 출신지인가. 大女는 이름인가? 『新撰姓氏錄』에 ‘丹波史, 後漢靈帝八世之孫, 孝日王之後也’라고 하였듯이 渡來系の 인물인가?”⁷⁰⁾ 라고 하였고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⁷¹⁾으로 보았다. 그런데 『新撰姓氏錄』은 중국 취향으로 바뀌어 가던 시기에 편찬된 것인 만큼 그 내용이 상당히 중국 위주로 위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丹波는 뒤에서 살필 秦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니라 원래는 韓이었다고 보아진다. 丹波大女娘子도 丹比氏와 마찬가지로 백제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 大石養磨(오호이시노미노마로)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에 “大石 高丘宿禰同祖 廣陵高穆之後也”⁷²⁾라고 하였는데 大石氏와 同祖인 高丘宿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그 出自가 百濟國公族이라고 하였다. 또 右京諸蕃下에서는 “大石椅立 出自百濟國人 庭姓

70) 稻岡耕二, 『万葉集事典』, p.208.

71)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72) 佐伯有清, 앞의 책, p.286.

蚊尔也…大石林 林連同祖 百濟國人 木貴之後也”⁷³⁾라고 하였다.

星野五彦은 백제 아니면 漢으로부터의 귀화인⁷⁴⁾으로 보았고, 高橋庄次는 백제 계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新撰姓氏錄』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계임이 분명하다.

• 大倭(야마토)

澤瀉久孝, 中西 進은 增訂本全註釋이 “文雅에 百濟의 公倭麻呂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인지 누군지 不明”이라고 한 것을 인용하고⁷⁵⁾ 있는데 이들 모두 大倭를 백제계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고자 한다.

• 大原真人高安(오오하라노마히토타카야스)

大原真人高安은 長皇子의 孫, 川內王의 子(紹軍錄)인데 稻岡耕二는 “黛弘道는 敏達天皇의 손자인 百濟王의 四世孫이라고 한다.”⁷⁶⁾고 하였다. 敏達天皇의 손자가 百濟王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계가 백제와 관련이 있거나 않을까 생각된다. 또 星野五彦은 大原真人今城을 귀화인⁷⁷⁾으로 보았으므로 大原真人高安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건너간 백제와 관련된 族姓이 아닐까 한다.

大原真人今城(오오하라노마히토이마키)도 星野五彦은 귀화인⁷⁸⁾으로 보았다. 백제계일 것이다.

大原真人櫻井(오오하라노마히토사쿠라이)도 大原真人 姓이므로 백제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大藏忌寸麿(오오쿠라노이미키마로)

大藏忌寸麻呂를 星野五彦은 신라계로 추정⁷⁹⁾하였고, 山本信三은 大藏은 阿知使臣의 族姓이며, 大藏忌寸麻呂는 韓族 또는 準韓族⁸⁰⁾이라고 하였으며, 上田

73) 佐伯有清, 위의 책, p.304.

7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75) 澤瀉久孝, 『萬葉集注釋 卷第九』, p.99. 中西 進, 『萬葉集事典』, p.280.

76) 稻岡耕二, 『萬葉集事典』, p.203.

77)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78)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79) 星野五彦, 위의 논문, p.30.

正昭도 도래계의 歌人⁸¹⁾이라고 하였다.

일단 신라계로 본 것을 따르고자 한다.

• 藤井連(후지이노무라지)

澤瀉久孝는 藤井連廣成(후지이노무라지히토나리)이라고⁸²⁾ 보았다. 連 姓이므로 渡倭人이다.

• 笠朝臣金村(카사노아소미카나무라)

中西 進이 “그리고 이들은 上掲 村山氏의 논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도 일부 공통되지만 그 외에 氏는 笠臣, 坂本臣, 羽栗臣들을 들고 있고, 시대를 널리 보면, 渡來者에 臣姓이 부여된 경우는 적지 않다.”⁸³⁾고 한 것을 보면 이 笠氏는 渡倭人일 것인데 中西 進이 주로 백제를 중심한 한인을 다루고 있음을 보면 이들도 백제계로 본 듯하다.

그렇다면 笠女郎(카사노이라츠메), 笠沙彌(笠朝臣鷹:카사노아소미마로)도 마찬가지로 백제계가 될 것이다.

• 馬史國人(우마노후히토쿠니히토)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⁸⁴⁾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神護 元年 外從五位下 馬毗登國人에 姓을 武生連이라고 내렸으며, 王仁의 族姓으로 河內國 伎人郷의 사람으로 韓族 또는 準韓族⁸⁵⁾이라고 하였다. 上田正昭는 渡來系의 歌人⁸⁶⁾이라고 하였다. 또 直木孝次郎은,

이러한 二組의 氏族이 王仁系 氏族이라고 할 경우, 중심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닐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武生氏라고 하는 것은 원래 馬史, 혹은 馬首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듯하며, 馬氏라고 하는 것은 역시 王仁 계통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氏族이 중심이 된 것처럼 생각됩니다.⁸⁷⁾

80)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81)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82) 澤瀉久孝, 『万葉集注釋』 卷第九, p.196.

83) 中西 進, 「憶良 渡來人論 補遺」, p.111.

84)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85)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6.

86) 上田正昭, p.32.

라고 하였다.

王仁의 族姓 중의 하나인 武生氏가 원래 馬史, 혹은 馬首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馬史國人은 백제계임이 분명하다.

• 麻田連陽春(아사다노브라지야스)

麻田連陽春은 『續日本紀』 神龜元年(724) 五月조에 正八位上 答本陽春에게 姓 麻田連을 내렸다고⁸⁸⁾ 하였다. 이로 보면 원래는 答本陽春이었음을 알 수 있다. 『新撰姓氏錄』 右京諸蕃에는 “百濟王朝鮮王淮之後也”⁸⁹⁾라고 하였다. 中西進은 答本은 百濟系 渡倭人이며 答本陽春을 答本春子の 아들인가⁹⁰⁾라고 하였다. 稻岡耕二도 도래인⁹¹⁾이라 하였다. 星野五彦도 백제계⁹²⁾로 보고 上田正昭도 淺田連陽春으로도 쓰며 백제계의 도래인⁹³⁾이라고 하였다. 백제계이다.

• 巫部麻蘇娘子(카르나기베노마소노오토메)

『新撰姓氏錄』 和泉國神別에서는 巫部連이 宇遲部連, 阿刀連, 韓國連이 모두 같다고 하고 韓國連에서는 이 姓이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⁹⁴⁾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攝津國神別에서는 “巫部宿禰 石上朝臣同祖”⁹⁵⁾이라 하였는데 石上이 백제계임을 생각하면 巫部麻蘇娘子는 백제계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 文忌寸馬養(아노이미키우마카이)

文씨는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上에 “文宿禰 出自漢高皇帝之後鸞王也 文忌寸 文宿禰同祖 宇爾古首之後也”⁹⁶⁾라고 하였다. 『續日本紀』 延暦十年四月戊戌(八

87) 直木孝次郎의 발언, 「王仁系氏族とその遺跡」, p.47.

88) 『續日本紀』 前篇, p.101.

89) 佐伯有清, 앞의 책, p.301.

90) 中西進, 『萬葉集事典』, p.193.

91) 稻岡耕二, 『萬葉集事典』, p.153.

92) 星野五彦, 앞의 논문, p.29.

93)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0.

94) 佐伯有清, 앞의 책, pp.270-271.

95) 佐伯有清, 위의 책, p.253.

日)條에 그 文忌寸이 姓宿禰를 내리는 이유를 “鸞之後王狗轉至百濟。百濟久素王時，聖朝遣使徵召文人。久素王即以狗孫王仁貢焉”⁹⁷⁾이라 하였다. 그 王仁이 文忌寸의 조상이라고 하였다.

上田正昭는 渡來系の 歌人⁹⁸⁾이라고만 하였고 星野五彦은 漢의 귀화인⁹⁹⁾이라고 하였고, 山本信三은 王仁의 후예이며 壬申의 功臣 彌麻呂의 子로 韓族 또는 準韓族¹⁰⁰⁾이라고 하였다. 直木孝次郎은

王仁系 氏族에 대해서는 『新撰姓氏錄』 그 외로 보아, 文氏는 東 漢氏에 대응하여 西 文氏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족으로서 『姓氏錄』에는 栗栖首, 武生宿禰, 櫻野首, 高志連이라고 하는 氏族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 藏首도 『古語拾遺』 등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西文氏의 一族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歷史上 가장 활약하는 것은 西文氏와 武生氏와 藏氏로 이것은 어느 것이나 古市郡에 거주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¹⁰¹⁾

라고 하였다. 『新撰姓氏錄』에서 그 出自를 漢高皇帝之後鸞王라고 하였지만 『新撰姓氏錄』이 의도적으로 渡倭人들을 중국계로 조작하고 있음이 많고, 백제계라고 한 기록도 있음을 아울러 생각하면 文忌寸馬養은 백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門部王(카도베노오오키미)

『万葉集』 卷第三의 310番歌 題詞에서 ‘門部王詠東市之樹作歌一首(後賜姓大原真人氏也)’라 하였는데 『新撰姓氏錄』 左京皇別에서 “大原真人 出自諡敏達孫百濟王也 續日本紀合”¹⁰²⁾라고 하였다. 大原真人高安에서 살았듯이 門部王이 大原真人氏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백제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門部連石足(카도베노모라지이와타리)의 門部連은 『新撰姓氏錄』 大和國神別에 “門部連 車須比命兒安車須比命之後也”¹⁰³⁾라고 하였으며 連을 사

96) 佐伯有清, 위의 책, p.280.

97) 『續日本紀』 後篇, p.553.

98) 上田正昭, 앞의 논문, p.32.

99)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0.

100) 山本信三, 앞의 논문, p.75.

101) 直木孝次郎의 발언, 「王仁系氏族とその遺跡」, p.46.

102) 佐伯有清, 앞의 책, p.151.